

불자 세상보기



우승택
현ST생태크연구사 대표
겸 승설대 겸임교수

저축은행 부실 문제가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고 있다. 저축은행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정부는 1972년 사금융이 만연해 신용질서가 혼란하고 자금난을 겪던 기업들이 사체에 의존하다 파산하는 사례가 잇따르자 저축은행 전신인 상호신용금고 제도를 도입했다.

총 대출금의 50% 이상을 해당 영업 구역 내의 개인과 중소기업에 대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는 것도 지역과 서민 금융의 원칙에 충실하도록 하기 위해서다.

이렇게 서민 금융회사가 설립된 저축은행은 잇따른 구조조정으로 최근 1년여 사이에 20여 곳이 문을 닫았다. 특히 업계 1위인 솔로몬 저축은행 포함해 10위내 대형 저축은행 6곳이 쓰러졌다.

2010년 말 87조원에 달했던 전체 자산 규모는 1.2차 구조조정으로 60조원

으로 쪼그라들었고 최근 영업정지된 저축은행들의 자산을 제외하면 이제 55조 원대로 급락했다.

IMF 외환위기 이후 장기적 전략 없이 몸집불기기를 유도하여 사금고처럼 전횡을 행한 대주주들과 함께 정책 잘못은 물론 감독도 허술했던 금융당국이 빚어낸 결과다.

IMF 외환위기 당시 시중은행 대부분이 외국인 손에 넘어갔다. IMF 전 국민은행과 주택은행 등은 서민들의 금융기관이었지만 현재는 정부의 대국민 홍보용으로 전략한 상황이다. 은행의 수수료는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경쟁체제가 심화되며 은행들이 이익을 내는데 혈안이 돼 있다.

한 은행을 예로 들어보자. 기업은행은 원래 중소기업은행이었다. 슬그머니 중소기업 명칭을 때버렸다. 크고 강한 것만 살아남는 세상이 금융권에도 예외는 아닌 것이다.

은행 금리가 묶이며 신용이 낮은 사람은 제1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수가 없게 됐다. 이런 사람들의 수요를 외면하니 고금리라도 저축은행에서 돈을 빌린다. 저축은행이 운영정지되면 이를 통해 생활을 지탱하던 이들은 어떻게 될까? 배

가 굶주려 죽게 생긴 이들에게 화전이 생애를 파괴하니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 그 아래는 제3 금융권인 사채다.

<장자>에는 한 바보의 이야기가 나온다. 어느 날 장자가 식량이 떨어져 친구 집에 식량을 빌리러 갔다. 길을 가다가 보니 수레바퀴 자국이 깊게 패인 곳에서 물고기 한 마리가 줄어가는 물 속에

저축은행 최근 1년새 20곳 문닫아

관리감독 허술이 빚어낸 결과

부도덕한 비리 은행장 엄벌해야

서 숨을 펴먹고 있었다. 장자는 이를 보고 말했다.

“아이고! 조금만 기다려라. 내가 장강 물을 길어다가 네가 물 부족으로 퍼떡이는 일이 없도록 해주마!”

물고기는 죽어가며 화를 냈다. “여보시오! 내게 필요한 것은 한 수레의 장강물이 아니라, 당장 숨 쉴 수 있는 한 바가지의 물이면 되요. 당신이 한 수레의 물을 가지러 장강으로 가는 순간 나는 죽을 것이요”

불법서민금융의 피해자들은 정부가 OECD가입, IMF극복, 위대한 한국, 한국 경제 747 그리고 국민소득 4만 불이라는 목표를 향해 가는 바퀴자국에 남은 물고기들이다. 서민금융 개혁이란 ‘장강의 물’을 뜨러간 사이에, 이들은 물이 없어 죽어간다.

그동안 정부는 앞만 보고 달려 관리 감독에 소홀했다. 성과 위주인 금융기관은 무슨 수를 써서든지 이런 이들을 돌보지 않는다. 위험한 곳에는 돈을 빌려주지 않는다. 그리고 이런 상황을 이용해 위험한 돈 놀이를 한다.

또한 저축은행 경영진의 부도덕한 비리도 비난받아 마땅하다. 특히 미래 저축은행 소유자인 김찬경 회장이 수천억원의 회사 돈을 횡령하고 중국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잡힌 걸 보면 직원들에게만 특별한 도덕성을 요구할 수 없었을 지도 모르겠다.

이같은 경영진에게 부실경영에 대한 책임을 지고 피해 최소화의 노력을 기대하는 것은 처음부터 무리일지 모른다. 도둑에게 갖가지의 열쇠를 통째로 내 준 꼴이라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이번 기회에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 되지 않도록 엄중 처단해야 한다.

서민들 ‘봉’ 된 저축은행 사태

社說

부처님 오신 뜻 아나 모르나

한국불교 전체가 국민과 불자들에게 머리 숙이고 참회했다. 백양사에서 벌어진 승려 8명의 도박 사태 때문이다.

폐쇄회로TV에 찍힌 스님들은 수행납자가 아닌 술·담배를 하는 속인의 모습이었다. 이 중에는 한국불교 1번지라고 불리우는 견지도 일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스님도 보였다.

그간 간간히 비위 승려에 대한 소식이 세간의 입에 오르내린 적은 있었지만, 이 정도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이런 후학들의 모습에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도 큰 충격을 받은 듯 하다. 진제 스님은 소식을 전해 듣고 “시주받은 먹을 자격도, 먹물웃을 입을 자격도 없다”고 강하게 경책하며 당신부터 참회한다고 했다.

총무원장 지승 스님도 “국민과 불자들에게 심려를 끼쳤다. 중단 책임자로서 부처님

전에 없던 참회한다”고 밝혔다. 백양사 문중도 참회문을 발표했다. 중앙종무기관 부실장 스님들은 일괄 사퇴했다.

적지 않은 사람들이 부처님오신날 봉축 분위기가 예년보다 못해질 것을 벌써부터 걱정한다. 우리가 지금 걱정해야 하는 것은 봉축 분위기가 아니라 부처님의 오신 뜻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는 현실을 우려해야 한다. 출가 정신의 기본은 자신을 한 없이 낮추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수행과 교화를 하고 무소유와 책임을 배운다.

이제 출가자는 재가자들 한국불교의 현실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인지, 불교계가 너무 방만하지 않았는지 몸을 낮춰 생각해봐야 한다. 또한, 이번 사태를 조계종이 추진하고 있는 자성과 쇄신 결사의 새로운 전환점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참회들이 더 이상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여수 ‘불교 홍보’ 전초기지로

전 세계 105개국이 참가하는 2012여수세계박람회(5월 11일 화려한 개막식을 열고 석 달간의 대장정에 들어갔다. 여수세계박람회는 불자들에게도 여러모로 의미가 있는 행사이다. 박람회 기간인 6월 11일부터 16일까지 여수 일원에서 제26회 세계불교대우의회(WFB)대회가 열리기 때문이다.

불교계도 여수세계박람회를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기회로 보고 기민하게 움직이고 있다. 특히 여수 흥국사, 향일암, 순천 송광사 등 인근 지역 템플스테이 운영 사업자들은 대회 기간 동안 어느 때보다 활발히 운영된다는 후문이다. 주최 측도 부족한 숙박시설 대신 템플스테이를 이용해 주길 권고하고 있는 실정이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의 행보도 눈길을 끈다. 5월 10일에는 엑스포타운 내 43m²(13평) 규모의 불교관을 개관했다. 여수불교사암연합회는 이곳에서 박람회 기간동안 부처

님오신날을 비롯해 각종 포교행사 및 정기법회를 봉행하게 된다. 6월 12일에는 세계 불교대우의회(WFB)대회 식전행사를 겸해 1천여 명의 불자가 참가하는 ‘전국불교합창제’도 열린다.

말 그대로 ‘다채로운’ 불교계 행사가 여수 일원에서 석 달 동안 펼쳐지는 것이다. 많은 준비를 한 만큼 차질 없이 한국불교문화를 국민과 세계인에게 보여주는 데 힘써야 한다. 무엇보다 한국 대표 전통문화와 관광자원으로 평가받고 있는 템플스테이는 세계의 관광자원으로 그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귀중한 기회다. 여기에 함께 열리는 세계불교대우의회(WFB) 대회는 한국불교를 세계 불교의 중심으로 발돋움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불교계는 이번 여수세계박람회를 한국불교를 세계에 알리기 위한 전초기지로 활용해야 한다. 기회는 자주 오지 않는다.

사부대중 칼럼



법현 스님
열린선원 원장
자운암 주지

내 부모, 내 부모의 부모, 그 부모의 부모들이 살았던 땅이 있다. 내 자녀의 자녀, 그 자녀의 자녀들이 끝없이 이어지며 살아야 할 땅이, 하늘이, 바다가 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하늘과 땅과 바다를 빼앗겼다. 그 때의 심정과 그 때의 몸이 겪은 고통과 상실감은 어떻게 말로 다 헤아릴 수가 없다. 그래서 “그러나 지금은 들을 빼앗겨 꿈조차 빼앗겼네”라 피를 토하며 썼던 이상화의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의 일부처럼 모든 것을 앗긴 슬픔을 노래하고 그것을 찾으려고 몸부림쳤다.

우리말로 내 이름도 부르지 못하고 남의 말로 남의 이름 같은 내 이름을 불렀던 시절, 그 혹독한 존재의 겨울을 지나고 만해를 비롯한 수많은 이들이 주검

으로 변하고 난 뒤에야 우리는 우리 글로 내 이름을 적을 수 있었다. 그 때의 기쁨은 ‘환희음악’, ‘뿔 뜻이 기뻐다’

고 이상의 표현이 없었다. 그러나 지금도 젊은이들의 좋지 않은 모습이나 위정자들과 관련한 갖가지 좋지 않은 것들과 무너져버린 교육현실, 국방현실, 이웃현실 등을 보면 ‘차라리 그 시절이 좋았어’라고 말하는 노인들이 있다.

그 시절이 다른 것들은 다 무너졌어도 기강만은 살아 있었다고 생각하는 것일 게다. 아마도 그것은 율령길의 소설에서 ‘완장’ 찬 녀석이 완장 찬 녀석에게만 고개 숙이면 나머지가 고개 숙이도록 만들 수 있다는 것과도 같은 것이다. 우리 이와 같은 어리석은 느낌의 만족 착각 현상을 주변에서 많이 만날 수 있다.

‘모든 것들은 절대자가 만들었으니 그의 뜻에 따르는 것이 기쁨이요 평화이며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따르지 않으면 그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가르침에 익숙한 이들이 있다. 그 안에서 평화로움을 맛보기도 한다. 그 나름의 질서가 있기 때문에 그 안의 평화도 평화라

고 할 수 있다. 한 곳에 이름을 붙여야만 그들 소속이라고 하는 이들도 있다. 문제는 이어짐(持續)이다. 그것이 끊어지면 이어질 수 없는가의 문제이다. 문제는 그들도 느끼는 만족 착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 어떤 것도 이루어진 것은 변화하고, (변화에 익숙하지 않으면) 괴로움과,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나(我)라고 할 만한 알갱이도 고갱이도 없다’는 가르침을 들어보았는가? 그것을 제대로 알면 평화로운 고요(涅槃)를 맛보고 누릴 수 있다는 가르침도 들어보았는가? 그것을 스스로의 실천으로 맛보고 누리고 나눌 수 있다는 가르침을 아는가? 내가 싫으면 남에게도 하지 말라는 가르침을 보았는가? 지금까지 약 120만년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런 가르침은 처음으로 나타나서 지금까지 우리 인류 더 나아가 만물에게까지 좋은 영향을 주고 있다. 마치 그것은 천년동안 어두웠던 동굴에 탐험가가 들어가면서 들고 갔던 햇불이 비치면서 천년의 어둠이 사라진 것과도 같은 일이다.

빼앗긴 들에서 억눌린 고요를 맛보았음을 참된 평화라고 착각하는 이에게 자유로운 평화와 질서가 무엇인지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완장 찬 기쁨을 참기쁨이라고 오해하는 천년 어둠의 동굴에 갇혀있는 이들에게 찬란한 빛나는 태양을 만나게 해 주는 일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그것이 바로 부다 석가모니가 전생애 만났던 연등불(Dipamkara Buddha)로부터 뒤에 깨달음을 얻어 부다가 되리라는 예언 즉 수기(授記)를 받은 것과 꼭 같은 일이다. 어둠의 세상에 밝은 빛, 진리의 빛을 밝히는 것이다.

바로 ‘등을 밝히는 것(燃燈, dipamkara)’이다. 물론, 십 년을 가뭇었던 사막에도 하룻밤 비가 오면 기화오조가 피어나고 별과 나비가 날아드는 것처럼 지혜의 밝은 등을 바라볼 수 있는 여유를 가지게 해 주는 자비의 나눔이 꼭 필요하다. 부처님오신날을 맞이하며 우리가 밝히는 등은 바로 천 년의 어둠을 밝히는 한줄기 빛이다. 그 안에 자비 가득 담긴, 모두 자비 담은 지혜의 등 밝히소서!

연등은 천년 밝히는 자비의 빛

Table with 2 columns: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and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phone numbers, and website.

Large advertisement for 'Zabi's Myanmar Charity' featuring photos of children and text about supporting education and welfare in Myanmar. Includes contact info for Myanmar Cultural House and Buddhist Relief Association.